



“학생들 규칙 지키다 희생 ... 교육부터 바꿔라”

도올 김용옥 교수 순천대 강연

“세월호 사건은 교육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서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는 순간, 학생들은 생존에 대한 본능을 따르는 대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도덕적 행동' 때문에 희생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권위에 복종하고,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배운 학생들의 '훌륭한 덕성'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을 찾은 도올 김용옥(66) 한신대 석좌교수는 한국사회에 대한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마련한 '우리 학생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강연을 위해 순천을 찾은 김 교수는

현대문명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450여 객석은 물론 무대 양쪽과 통로까지 가득 메운 800여명 청중은 강연 내용을 기록하며 2시간 30분간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최근 '도올의 교육입국론'을 펴낸 김 교수는 교육에 대한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17명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13명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며, 교육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통일 초석을 다졌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온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면 정치권력을 획득한 소수가 변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교육자들이 바뀌는 것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변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교육 속에서 찾고 역설하는 그는 지난 4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상처를 대한민국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책임한 정부와 무능력한 어른들로 인해 희생된 학생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이번 참사에 드러난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곧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서 생존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대기하라'는 지시에 따라다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우리 사회가 가르쳤던 교육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되레 독이 된 것이다. 그는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교육'을 자처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확고하게 갖지 못한 채, 기존 체도를 '보수교육'으로 규정하고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면 '진보의 미래'는 어둡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교육이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정의하며, 교육자들이 달라지는 것은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가르침에 있어 절대적으로 옳은 유일한 길은 없습니다.



지난 16일 순천대를 찾아 '우리 학생,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한신대 김용옥 교수는 800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2시간 30분간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순천=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배운대로 실천 ‘도덕적 행동’이 독이 되는 현실 스스로 판단할 독립적 힘 길러주는 것이 ‘본질’ 보수든 진보든 가르침에 ‘절대적 옳음’은 없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만이 옳은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신의 길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순간 개인과 사회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진보교육자들은 해체해야 할 대표적인 구습으로 주입식 교육을 손꼽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게 마련입니다. 주입식은 나쁘고, 토론은 좋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토론은 교육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는 체벌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학생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체 모든 체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보교육자들이 그동안 학교와 학생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체벌' 등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념갈등을 키웠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자들이 이념논쟁에 얽매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것이 학생과 사회를 위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김 교수는 어미 닭과 병아리를 보며 교육의 본질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닭 60여 마리를 직접 키운다는 그는 어미 닭이 달걀을 낳아 부화하기까지 과정 속에 참교육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미 닭은 따뜻한 체온으로 알을 품어주고 새끼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병아리가 포근함에 안주해 이를 깨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닭은 모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병아리라도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존할 수 있는 독립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어미 닭이 병아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질서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보수, 이에 반대하며 자유를 내세우지만 정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진보까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과연 얼마나 고민해 봤는지 모두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김 교수는 예정됐던 강연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쓴소리를 가감 없이 토해냈다. 고희(古稀)에 가까운 나이에도 시종일관 여유있는 표정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낯선 비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청중들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큰 박수로 화답했다. 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배움을 게을리 않는다는 그는 교육이 '다양한 교실'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갈무리했다. /순천=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대촌농협 주부모임, 경로당에 복달임 음식



광주시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 농가주부모임 30여명은 최근 직접 담근 열무김치 100통과 백숙용 닭 250마리를 대촌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70곳에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

남부대-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협약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와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가 최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학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나선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제공>

농협전남본부,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열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최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러브인 전남농협! 다문화가족 합창대회'를 개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인사

◆광주지방기상청
◇4급 진보 ▲예보과장 정덕환 ▲전주기상대장 구대영 ▲목포기상대장 조기현

내방

▲강인규 나주시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지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민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

- 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담자 조우상)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할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 ▲디자인 스킵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전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인수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분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안전모니터봉사단원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은 자원봉사 남작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010-9612-7695.
- ▲푸른길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 ▲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 ▲하리근로자종합복지관 2014년도 7~9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3개월 3만원(월~목) 수시접수 062-951-9461.

- ▲자원봉사자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부음

- ▲박영수씨 별세 성천(광주일보 문화2부 차장)·성진(현대정유)·선미·은하·덕

- 주씨 부친상=발인 22일(화) 광주 만평장 레식장 202호 062-611-0000.
- ▲진경자씨 별세 김경근·본곤·중곤·성곤·오곤·정남·정순·정래씨 모친상=발인 2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안홍철씨 별세 시욱·혜진·해영·해숙씨 부친상=발인 22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김중식씨 별세 만옥·남옥·동옥씨 부친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성영수님(남/73세) 子/子婦: 성경호, 성영우 女/婿: 성은경/정재만, 성은선/김근형 未亡人: 정영혜 •발 인: 7월 2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정명주님(남/81세) 子/子婦: 정주호/김미희 女/婿: 정주희/서선호 未亡人: 김용동 •발 인: 7월 22일 •장 지: 화순 남면 선영 •연락처: 227-4386
402호 故김길자님(여/77세) 子/子婦: 김일봉/전경선, 김이봉/김명자, 김삼봉, 김오봉/남정기 •발 인: 7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 浩 宗 喪 禮 式 場 謹 議 http://www.mykumho.com	